

**【 2015.07.13(월) 강원일보 】**

**평창올림픽조직위 시설국장  
손창환 도로철도교통과장 유력**

김순녀 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공석이 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국장(3급)에 누가 발탁될지를 놓고 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최근 조직위는 사무처 3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오버레이 부장(4급)에 건축직인 박종열 도 건축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설국장은 도청 내 과장 중에서 토목직이 승진, 파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시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한 손창환 도로철도교통과장이 유력 후보로 올라왔다. 22일자로 신설되는 도의회 홍보담당관(4급)에는 박상민 도의회 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석만기자

**맹성규 경제부지사 오늘 취임 도 5개국 관할**

이청룡 시장·송승철 총장도 업무 돌입  
〈도개발공사〉 〈강원도립대〉

맹성규 경제부지사가 1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맹 부지사는 건설교통국과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녹색국의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SOC 확충은 물론 투자 유치 등 산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



◇맹성규 부지사



◇송승철 총장

책관,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이청룡 도개발공사장과 송승철 도립대총장도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이성현기자

**【 2015.07.13(월) 강원도민일보 】**

**경찰청 총경급 인사 16일 단행**

**도내 13명 안팎 예상**

경찰청 총경급 전보 인사가 오는 16일쯤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인사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경급 보직인사 대상은 강원경찰청 참모 7명과 일선 경찰

서장 6명 등 13명 내외의 중폭 규모로 예상된다.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강원청 참모는 엄기영 경무과장, 이용완 생활안전과장, 김숙진 여성청소년과장, 이종규 형사과장, 정인식 112종합상황실장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영월, 평창, 홍천,

강릉, 태백 등 일선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이의신·류성호 치안지도관은 각각 경무과장 및 112종합상황실장 발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장 가운데 홍순광

강릉서장과 윤원욱 태백서장, 김광식 평창서장은 유임을 희망하고 있으며 김경자 영월서장, 김희중 홍천서장은 각각 세종시 전출 및 강원청 참모 발령을 원하고 있다. 오는 12월말 퇴직을 앞둔 위강석 원주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신임 원주서장에는 정인식 112종합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시공사 현황

사업명	시공사(소재지)	낙찰금액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대림산업(서울) 동부건설(서울) 정상종합건설(원주) 동진건설(원주)	969억9600만원
중봉 알파인 경기장 (활강)	한백종합건설(전북) 신영종합건설(충청) 동양건설(전남 화순)	444억2972만원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계룡건설산업(대전) 태백건설산업(강릉)	390억165만원
아이스하키1경기장	계룡건설산업(대전) 태백건설산업(강릉)	316억1107만원
아이스하키2경기장	계룡건설산업(대전) 태백건설산업(강릉)	284억6185만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건축)	성지건설(경기) 현대아산주식회사(고성) 중미건설합자회사(강릉)	389억9034만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토목)	효성(영월)	39억원
보광스노보드경기장	대금종합건설(원주)우방산업(경기 이천)	223억5345만원

# 올림픽경기장 건설공사 도내 업체 2112억 수주

## 전체 금액 3944억 중 53%

원주 대금 종합건설이 평창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주 시공사로 결정되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이 모두 완료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금 종합건설이 경기도 이천 우방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공사 주 시공사로 선정됐다.

설계 금액은 299억원이며 최종 낙찰가는 223억원이다.

대금 종합건설은 공사 금액의 51%, 경기 이천 우방산업은 49%의 공사지분을 갖는다.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시공사가 결정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공사 입찰이 모두 끝났다.

969억원 규모의 평창 슬라이딩 센터는 대림산업(서울)이 주 시공사가 됐으며 동부건설(서울)과 도내에서는 정상종합건설(원주), 동진건설(원주)이 공사에 참여했다.

444억원 규모의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는 한백종합건설

(전북)이 주 시공사가 됐으며 신영종합건설(충청)이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했다.

강릉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의 최종 낙찰가는 390억원이며, 계룡건설(대전)과 태백건설산업(강릉)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가졌다.

최종 낙찰가가 316억원인 '아이스하키 I 경기장'과 284억원인 '아이스하키 II 경기장' 역시 계룡건설(대전)과 태백건설산업(강릉)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갖고 공사를 맡는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토목과 건축공사가 분리 발주됐으며 389억원 규모의 건축공사는 성지건설(경기)이 51%, 현대아산(강릉)이 20%, 중미건설(고성)이 29%의 지분을 갖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39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는 영월 업체인 효성이 100%수주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동계올림픽 관련 총 공사 계약 금액은 3944억원이며 이 중 도내 업체들이 2112억원(53.5%)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은복 rio@kado.net